**Nomura – Equity Derivatives Sales**

포지션: Full-time

지원방법: KKB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

회사위치: 광화문 Seoul Finance Center 17층

**First-Round**

**면접관: Equity Derivatives Sales 이사 (30분 / 한국어 99% 영어 1%)**

어떤 포지션이고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질문은 Fit & Competency 위주였습니다. 영어로 자기소개 해 보라고 하셔서 영어로 몇 마디 하니 그 정도면 됬다고 하시더군요. 그냥 영어 어느 정도 하나 보려고 하신듯.

**Second-round**

**면접관 Equity Derivatives Sales 상무 (50분 / 한국어)**

항상 technical한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해서 들어가지만 Fit & Competency여서 허탈(?)했는데 이번 면접도 그랬습니다. 다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* 눈치 있는 편이냐?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?

**면접관 Equity Derivatives Sales 전무 (30분 / 한국어)**

Fit & Competency 위주이고 직무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. Nothing special.

**Third-round**

서울 지점의 지점장은 아니지만 전무님이랑도 봤고 해서 이번엔 지점장님 또는 홍콩에 계신 분이랑 볼 것으로 예상했는데 얼추 맞았네요. 화상면접으로 홍콩에서 한국 주식파생세일즈 팀이랑 같이 일하는 외국인 trader 2명과 면접을 봤습니다. 각각 따로 봐서 2번.

**면접관: Equity Derivatives Trader (30분 / 영어)**

이름이나 억양으로 봐서 영국 사람인듯, 주로 제 이력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질문을 하더군요. Fit & Competency 위주

**면접관: Equity Derivatives Trader (30분 / 영어)**

프랑스 사람. 이름도 그렇고 영어 발음도 그렇고, 여기 한국 지점 HR 담당자 분이 이분 발음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. 이 분은 technical 질문들도 하셔서 진땀 났습니다.

*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?
*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것 같은가? 그 이유는?
* 옵션 pricing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?
* Trader는 vol을 사는 입장인가, 파는 입장인가? 등등